

인도, 중국 제치고 '세계의 공장' 도전

노동력·내수시장 탄탄

인구도 곧 중국 넘어설 듯

제조업 수출·외국인 투자 급증

인허가 절차 등 장애물도 여전

세계 최대 풍력터빈 제조업체인 덴마크 베스타스(Vestas)는 2021년 인도 남부 경제 중심지 첸나이 인근의 스리페툼부두르에 2개 공장을 새로 지었다.

현재 6개의 베스타스 조립 공장 주변에는 납품 업체들까지 합류했다.

인도가 곧 세계 2대 터빈 시장이 되리라는 전망이 베스타스의 확장을 촉발했으며, 중국을 벗어나 생산을 다변화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더해진 것이기도 하다. 베스타스 인도공장 임원으로 새로 지었다. 현재 6개의 베스타스 조립 공장 주변에는 납품 업체들까지 합류했다. 인도가 곧 세계 2대 터빈 시장이 되리라는 전망이 베스타스의 확장을 촉발했으며, 중국을 벗어나 생산을 다변화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더해진 것이기도 하다. 베스타스 인도공장 임원으로 새로 지었다. 현재 6개의 베스타스 조립 공장 주변에는 납품 업체들까지 합류했다.

인도가 '세계의 공장'으로 일컬어지는 중국의 경쟁자로 부상했다고 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서방 회사들이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으로 명명된 전략 아래 필사

적으로 중국의 대체지를 찾고 있는데, 인도가 '플러스 원'이 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는 중국의 규모에 필적할 노동력과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

인구가 세계 최대일 수 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최근 나오기도 했다.

서방 정부들은 민주 체제의 인도를 자연스러운 파트너로 보고 있으며, 인도 정부는 이전보다 더 친 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는 베스타스 공장이 있는 스리페툼부두르 내 산업단지들이 크게 확장하고 있는 데서도 나타난다.

이곳에서는 자동차와 가전에 이어 태양전지판, 장난감, 신발에 이르기까지 다국적 제조업체들이 밀려들고 있다.

이들 모두 중국 공장의 대체지를 찾고 있기도 하다. 중국이 물론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기지라는 지위는 여전히지만, 최근 잇따른 사태는 기업들에 중국 밖 대체지를 찾고 있게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노동비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중국 경쟁업체들에 기술을 이전하라는 중국 당국의 압력도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이 봉쇄된 것이나 서방 정부들이 미국의 압력에 따라 중국과 거리두기에 나선 것도 탈중국 움직임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에서는 중국과 맞설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수출이 2021년 기준으로 아직은 중국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멕시코나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다른 신흥국들을 모두 뛰어넘었다.

가전제품 수출의 경우 230억 달러 규모로, 2018년 이후 3배로 급증하는 눈부신 성과를 냈다.

특히 애플은 지난 15년간 중국 내 생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으나 2017년 이후 저가 아이폰 모델부터 시작해 최근에는 최신 기종인 아이폰14까지 생산한다.

JP모건은 2015년까지 모든 아이폰 생산의 25%가 인도에서 생산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인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도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연평균 420억 달러에 이르는 등 최근 10년 사이 배가 됐다.

그러나 전체 경제에서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에서 투자하거나 제조업을 하는데 장애물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WSJ은 전했다.

노동력이 부족하거나 숙련도가 낮은 데다 기간 시설은 개발이 더디고 규제를 포함한 사업환경도 부담이 되고 있다.

용지 매입이나 공장 건설과 관련해 미진한 인허가 문제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과 달리 관세를 높여 수입품 대신 자국산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매트리스에 몸 싣고 미 국경 향하는 멕시코인들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 즉각 추방정책 '42호 정책' 종료로 이들 앞둔 9일(현지시간) 멕시코인들이 마타모로스에서 미국으로 향하기 위해 매트리스를 타고 리오브라보 강을 건너고 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명분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가 도입한 42호 정책을 오는 11일 종료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러시아, 세계의 굶주림을 전쟁에 이용 말라”

미·영, 흑해 곡물 협정 확장 촉구

미국 국무부 장관과 영국 외무부 장관이 러시아에 세계인들의 굶주림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고 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제임스 클리버리 영국 외무부 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흑해 곡물 협정을 확장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러시아는 또 한 번 우크라이나에 입항해 곡물을 실으려는 선박을 막아섰다”며 “글로벌 식품시장과 아프리카, 중동 등 식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식량이 줄어들게 만드는 이기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사람들의 굶주림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몇주에 한 번씩 상기시킬 필요가 없어

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튀르키예에 있는 우리의 동료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 감사드린다”라고도 했다.

클리버리 장관도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당신(블링컨 장관)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굶주림을 이용하는 건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러시아)은 흑해 곡물 협정에 즉시 재서명해야 한다”며 “식량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식량 공급을 개방해야 하며 개발도상국의 굶주림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렛대로 삼는 것은 뼈대질 일”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후 흑해 봉쇄로 고조된 세계 식량난 완화를 위해 작년 7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곡물 수출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흑해 곡물 협정을 맺었다. /연합뉴스

베트남 “온라인 범죄에 대응”

SNS 이용자 신원확인 추진

베트남 정부가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차원에서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기로 했다.

10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응우옌 타인 랍 정보통신부 차관은 “초국적 플랫폼 이용자가 법을 위반해도 추적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내에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면 사기범죄 집단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에서는 교제를 미끼로 금전을 사취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보이스 피싱 등 각종 온라인 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현재 페이스북과 유튜브, 틱톡은 베트남 현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신원 확인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반면 이번 조치가 반정부 성향 활동가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베트남 공산당은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여론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2019년에는 반국가적인 목적의 단체 조직·선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이버보안법을 발효한 데 이어 작년 6월에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작년 하반기에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대형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통신사업자들은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최소 2년간 저장하고 현지에 사무소를 개설하도록 조치했다. /연합뉴스

EU 집행위원장 우크라이나 추모의 벽에 묵념



9일(현지시간) 유럽의 날을 맞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오른쪽)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전사자 추모의 벽에서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30년전 성추행 인정...트럼프 대선 가시밭길

민사소송 배심원단 성추행 판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형사 기소에 이어 거의 30년 전 성폭력 의혹까지 사실상 인정되면서 그의 내년 대선 재도전이 가시밭길 이 됐다.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려던 성인 배우에게 거액을 지급하면서 회사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 중 최초로 형사 기소된 지 한 달여 만에 이번에는 성폭력 혐의에 무게를 실는 민사재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공교롭게도 두 사건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

향인 뉴욕시에서 진행됐다.

맨해튼 지방검찰청의 기소로 형사 재판을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유명 패션 칼럼니스트 출신 E. 진 캐럴(79)이 제기한 성폭력 의혹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했고,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모두 500만달러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 약재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